

[어법 수능기출 문제]
- 맞춤법, 고쳐 쓰기, 올바른 문장 -

※ 아래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선생님 생각을 할 때마다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지요. 무슨 일이었는지 제가 선생님 책상을 기웃거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수로 잉크병을 넘어뜨렸는데, 뚜껑이 열려 있어서 책상을 홍건이 적시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이였다면 별로 큰일이 아니었겠지요. 마침 책상 위에는 하얀 종이가 펼쳐져 있었고, 까만 잉크가 하얀 종이를 마치 세계 지도처럼 물들였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져 그저 서 있기만 할 따름이었습니다. 잠시 뒤 선생님께서 오셨고, 저는 고개를 떨군 채 어떤 버락이 내릴지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선생님께서는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제 어깨를 툭 치시고는 “괜찮다.” 한 마디만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선생님께서는 교무 부장이셨지요. 제 눈에서는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 건 감사의 눈물이었고, 그 후로 저는 선생님을 더욱 존경하며 따르게 되었습니다.

1. 다음 중, 맞춤법에 어긋나는 것은?

- ① 홍건이 ② 그것만이였다면 ③ 큰일
- ④ 한참 동안 ⑤ 괜찮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과정이야 어쨌든 결과만 빨리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과정을 소홀히 하고 결과만을 빨리 얻으려는 이러한 결과 우선의 사고는 과학 기술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기초 과학 분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날이 발전하는 첨단 기술이라는 열매를 어떻게 하면 빨리 딸 수 있을는지 만 생각했지, 그 열매가 어떤 기후에서, 어떤 자양으로, 어떻게 자라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외면해 왔다. 그럴수록 과학 기술의 결과 우선 주의가 공허한 바가 없는 것은 아니나, 기초 과학 분야를 도외시한 채 당장 써먹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응용 과학 분야만을 추구하는 것은 바보 같은 것이다.

2. 맞춤법에 어긋난 것은?

- ① 어쨌든 ② 소홀히 ③ 나날이
- ④ 있을는지만 ⑤ 채

철수는 어머니를 도와 ㉠실것이를 하였다. 철수는 먹다 남은 ㉡찌개와 ㉢온갖 반찬 찌꺼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였다. 그 때 ㉣텔레비전을 보고 ㉤게시든 어머니께서 놀라며 말씀을 하셨다. “애, 안 돼. 분리 수거를 해야지.”

3. 맞춤법에 맞는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1976년에 미국의 수학자 아펠(K. Appel)과 하켄(W. Haken)은 지도(地圖)의 채색과 관련된 ‘사색(四色)문제’를 증명했다고 발표했다. 사색문제는 한 세기 이상 수학자들을 괴롭혀 오던 문제로, 어떠한 지도라도 네 가지 색만 있으면 지도상의 모든 지역(국가, 도, 시, 군 등)을 ㉠구별하여 나타낼 수 있음을 증명하는 문제이다.

4. ㉠의 용례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말의 용언은 동사와 형용사로 구별된다.
- ② 경제학과 경영학은 엄연히 구별되는 학문이다.
- ③ 토론 과정에서 비판자 비난은 구별되어야 한다.
- ④ 비전문가에게는 갈대와 억새의 구별이 쉽지 않다.
- ⑤ /ㅈ/와 /ㅊ/발음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5. 제시된 낱말을 활용하여 문장을 만드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잘못 해결한 것은?

- ① 다리다: 약은 정성껏 다려야 한다.
달이다: 내일 입을 옷을 달이고 있었어.
- ② 안치다: 이제 밥만 안치면 되겠구나.
앉히다: 아이들을 어디에 앉히면 좋겠니?
- ③ 엉기다: 그릇에 기름이 엉기어 있군.
엉키다: 여행 계획이 엉키어 버렸군.
- ④ 이따가: 지금은 바쁘니까 이따가 만나자.
있다가: 조금만 누워 있다가 일어나마.
- ⑤ 저리다: 다리가 저려서 걸기가 힘들구나.
절이다: 배추를 절이는 방법을 배웠어.

6. 혼동하기 쉬운 단어를 구별하여 사용한 예로 잘못된 것은?

- ①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금방 갈게.
요즘에는 방금 전에 읽은 것도 자꾸 잊어버려.
- ② 매몰됐던 광부를 열흘 만에 구조했다.
인류를 고통에서 구원하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야.
- ③ 그는 갑작스러운 사태에 당황하고 겁이 나 부들부들 떨었다.
그의 이야기는 허황되고 황당한 것이었다.
- ④ 눈은 빛의 자극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뇌로 전달한다.
지난 50년간 변천해 온 여성의 생활상을 보여 주는 사진전이 열린다.
- ⑤ 우리 선조들은 남녀 간에 식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달빛이 밝아서 멀리 있는 사람도 흐릿하게나마 분별이 가능했다.

하루 세 번 ㉠칫솔질할 것을 권장하는 치과 의사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보 기>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소리가 덧나는 것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 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퇴간(退間), 횡수(回數)

7. <보기>는 ‘한글 맞춤법’의 일부이다. ㉠의 표기 원칙을 설명한 항목은?

- ① 제30항 1-(1) ② 제30항 1-(2)
- ③ 제30항 2-(1) ④ 제30항 2-(2)
- ⑤ 제30항 3

8. <보기1>과 같은 표준어 규정을 바탕으로 <보기2>를 이해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1>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예) 오뚝이(x)→오뚝이(○), 쌍둥이(x)→쌍둥이(○) 등.

다만,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다음 단어에서는 양성 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부조(扶助)	부주	~돈, ~금
사둔(査頓)	사둔	밭~, 안~
삼촌(三寸)	삼촌	외~, 처~

<보기2>

- ㉠ 그 아이는 좋아서 깡충깡충 뛰며 어쩔 줄 몰라 했다.
- ㉡ 내가 그 애와 똑같다며 쌍둥이가 아니냐고 묻곤 했다.
- ㉢ 어릴 때부터 삼촌은 나의 든든한 후원자였다.

- ① ㉠의 '깡충깡충'을 '깡충깡충' 대신 표준어로 정한 것도 이 규정에 따른 것이겠군.
- ② ㉡의 '쌍둥이'를 보니 '막둥이'나 '흰둥이'도 예전에는 '막둥이', '흰둥이'였겠군.
- ③ ㉢의 '삼촌' 대신 '삼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원을 고려하여 '삼촌'으로 사용하라는 것이군.
- ④ ㉠의 '깡충깡충'과 ㉢의 '삼촌'은 둘 다 음성 모음 형태로 발음하는 습관을 반영한 것이겠군.
- ⑤ 대다수 인종들의 발음 습관이 달라져 굳어지면, 그 어휘들의 표준어형도 달라질 수 있겠군.

9. <보기>와 같이 적절한 단어를 선택한 후 각 단어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 **흉내/시늉**

- ㄱ. 아이들은 장터에서 장사꾼 (**흉내**, 시늉)을/를 냈다.
- ㄴ. 아이들을 불러서 공부를 하랬더니 (**흉내**, **시늉**)만 했다.
- ㄷ. 아이가 우는 (**흉내**, **시늉**)을/를 했다.

○ **조성/조장**

- ㄴ. 장터에서부터 명절 분위기가 서서히 (**조성**, **조장**)된다.
- ㄷ. 과소비를 (**조성**, **조장**)하는 광고는 자제해야 한다.
- ㄹ. 사람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 **조장**)하여 이득을 보려는 장사꾼이 있다.

- ① 'ㄱ'과 'ㄷ'을 보니, '흉내'는 '남을 따라 함'을, '시늉'은 '움직임을 꾸며 함'을 뜻하네.
- ② 'ㄱ~ㄷ'을 보니, 호응하는 서술어를 통해서도 '흉내'와 '시늉'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겠어.
- ③ 내용상 'ㄱ' 뒤에 'ㄴ'이 연결된다면, 'ㄴ'의 '시늉' 앞에는 '장사꾼'이 생략되었겠네.
- ④ 'ㄷ'과 'ㄹ'을 보니, '조성'은 '만들어 이름'을, '조장'은 '더 하게 함'을 뜻하네.
- ⑤ 'ㄷ~ㄹ'을 보니, '조장'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 어렵겠군.

10. <보기>의 예를 통해, 문맥 속에서 인칭 대명사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보 기>

㉠내가 부탁 하나 할게요. ㉡나는 ㉢그쪽에서 ㉣우리 아버지의 책을 맡아 주셨으면 해요. 이걸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책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시지요. ㉦당신에게 그 책을 맡기시려는 것을 보니 당신을 무척 믿으시는 것 같아요.

- ① ㉠과 ㉡을 비교해 보니 ㉠은 '나의'를 줄인 말이겠군.
- ② ㉢과 ㉣은 가리키는 대상이 같아.
- ③ ㉤은 ㉡과 ㉢을 아울러 가리키는 말이야.
- ④ 앞 문장에 나온 말을 반복하는 건 어색하니까 ㉤은 적절한 대명사로 바꿔야 해.
- ⑤ ㉥은 높임법에 맞지 않으니 '자기'로 바꿔야 해.

11. <보기>의 ㉠에 해당하는 것은?

<보 기>

명사는 보통 모든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그러나 '극비리'는 ㉠ 원칙적으로 '에' 외의 조사와는 결합하지 않는 명사로, '극비리에 사업을 추진하다'처럼 사용되고, '극비리가', '극비리를', '극비리의', '극비리에게', '극비리이다'처럼 사용되지 않는다.

- 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
- ② 이 판국에 내가 나한테 그럴 수는 없다.
- ③ 선생님 덕분에 무사히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 ④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다.
- ⑤ 다들 제멋에 사는데 이러니저러니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다.

12. <보기>를 바탕으로 접미사 '-되다'에 관한 탐구 학습을 수행한 결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건설+ -되다¹ →건설되다	못+ -되다² →못되다
발견+ -되다¹ →발견되다	참+ -되다² →참되다
평가+ -되다¹ →평가되다	막+ -되다² →막되다
처리+ -되다¹ →처리되다	영광+ -되다² →영광되다
(용례)	(용례)
· 다리가 건설 되었다.	· 못 된 장난을 치다니.
· 유물이 발견 되었다.	· 영광 된 자리에 서다.

- ① '-되다¹'은 받침이 있는 말과 없는 말 모두에 붙을 수 있구나.
- ② '-되다²'는 명사뿐 아니라 부사와도 결합하는구나.
- ③ '-되다¹'이 붙으면 동사가 되고, '-되다²'가 붙으면 형용사가 되는구나.
- ④ '-되다¹'은 행위나 작용의 의미를 갖는 명사와 결합하지만, '-되다²'는 그렇지 않구나.
- ⑤ '-되다¹'은 '이루거나 만들다'의 의미를, '-되다²'는 '바뀌거나 변화하다'의 의미를 더하는구나.

13. <보기>의 자료를 읽고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맞춤법 규정**】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예) 먹이, 믿음 등.

다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떨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예) 목거리 (목이 아픈 병), 노름 등.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예) 마중, 무덤 등.

【**맞춤법 규정 제19항 해설**】

- 널리 쓰이는 접미사가 어간에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는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 원칙이나, 그 어간의 뜻과 떨어진 단어는 밝혀 적지 않는다.
- 널리 쓰이지 않는 접미사가 어간에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는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 ① '먹이'를 '머기'로 적지 않은 것을 보니 '-이'가 널리 쓰이는 접미사겠군.
- ② '목거리'와 달리 '목걸이(장신구)'는 어간의 뜻과 떨어지지 않은 예로군.
- ③ '마중'을 '맞옹'으로 적지 않은 것을 보니 '-옹'이 널리 쓰이지 않는 접미사겠군.
- ④ 널리 쓰이는 접미사가 붙어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은 예로 '같이'를 추가할 수 있겠군.
- ⑤ 널리 쓰이는 접미사가 붙었지만 어간의 뜻과 떨어져 어간의 원형을 밝

혀 적지 않은 예로 '마개'를 추가할 수 있겠군.

14. 다음 중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 ① 우리가 한글과 세계의 여러 문자들을 비교해 볼 때 매우 조직적이며,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라고 하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 ② 그가 오락에 몰두하는 것은 단순히 즐기기 위해서 보다는 현재의 피로움을 잠시나마 잊어 보려는 행동에 불과하다.
- ③ 인간은 언어를 통하여 자기의 경험을 남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남의 경험을 제삼자에게 전달하기도 한다.
- ④ 과학적 인간관과 인식론에 있어서는 인간과 인식에 관한 유일한 가정처럼 받아들여지는 데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 ⑤ 한 나라의 영화 정책은 당연히 자기 나라 영화의 보호와 진흥을 목적으로 그 방향에 따라 정책을 수행한다.

15. 어법이 바르고 자연스러운 문장은?

- ① 세상 시름에서 훨훨 벗어난 그는 이 첩첩산중에서 신선처럼 살았다.
- ② 오늘도 어김없이 바람 부는 날인데도 노인은 외출할 생각을 마음먹었다.
- ③ 그녀는 자신이 이기적인 줄을 알면서도 남에게서는 무척 듣기 싫어한다.
- ④ 회원 각자의 현재의 자기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 ⑤ 그의 얼굴에 나타난 감정은 누구에게도 감출 수 없는 사랑의 표정이었다.

만약, 나이 드신 분께 ㉠“어르신 이는 아직 튼튼하시지요?”처럼 말한다면, 교양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16. 문장이 잘못된 이유가 ㉠과 같은 것은?

- ① 사장님께서서 사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셨습니다.
- ② 그 안건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습니까?
- ③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막연한 사이지요.
- ④ 할아버님께서서 올해 나이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 ⑤ 이 배는 사람이나 짐을 싣고 하루에 다섯 번씩 운항합니다.

17.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은?

- ① 사회 복지란 모든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안락하게 사는 상태를 말한다.
- ② 우리가 인체를 탐구하는 것은 그 속에 인간을 창조한 모든 비밀이 숨어 있다고 생각한다.
- ③ 미술 작품은 그 표현 형식과 내용이 이해되어지는 경우에 비로소 감상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모든 개인은 환경에 관한 정보에 대해 적절한 접근과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 ⑤ 저녁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들판에서 농부 내외가 조용히 기도를 드리는 경건한 모습이 한 눈에 들어왔다.

<우리말 바르게 사용합시다>라는 주제로 강좌를 개설한 이래 오늘이 그 세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식구들을 가리키는 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 짐작할 수 있겠지만 우리말에는 다양한 어법이 존재하며, 그것들은 매우 세밀하게 나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법들은 정확히 사용하는 일이 쉬운 것만은 아니어서 자기도 모르게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바로 그러한 어법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사례를 한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려 드리는 전화 통화 내용을 잘 들으면서 남성 통화자의 어법이 어떤 점에서 잘못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따르릉, 따르릉)

남 : 여보세요.

여 : 여보세요. 홍길동씨 계십니까?

남 : 지금 안 계시는데요.

여 : 어디 멀리 가셨나요?

남 : 예, 지금 회의가 있어서 참석 중이십니다.

여 : 회의는 언제 끝나나요?

남 : 조금 있으면 끝나겠지만 30분 후에 또 회의가 계시거든요.

여 : 아유, 그럼 통화하기가 어렵겠군요.

남 : 예, 그러실 것 같습니다. 혹시 전화실 말씀이 계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여 : 아닙니다. 다시 전화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남 : 예 알겠습니다.

18. 어법 사용의 잘못이 남성 통화자의 경우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그 가게가 어딘지 정확히 가르쳐 봐.
- ② 철수야, 선생님께서 교무실로 오시래.
- ③ 혜영아, 저녁에 서울역전 앞에서 만나자.
- ④ 어제 저녁에 한솔이네랑 외식 먹으러 갔었어.
- ⑤ 내가 너네 집으로 가는 것보다 너가 우리 집으로 와라.

19. 표현이 바르게 된 문장은?

- ① 이 배는 사람이나 짐을 실어 나릅니다.
- ② 우리 모두의 바람은 가족의 건강이야.
- ③ 모금한 돈이 너무 작아 죄송합니다.
- ④ 내년에는 수출량을 더 늘려야 한다.
- ⑤ 김장을 직접 담아 드십니까?